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10개 기관 합동 방제훈련

- 금호강 하류(낙동강 인접)에서 화학물질 유출 가정, 신속 협력 대응체계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20일 성서제3차산업단지 인근 금호강 하류(낙동강 인접, 대구 달서구 파호동 소재)에서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방제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에는 을지연습(8월 19~22일)과 연계하여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구미화학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군부대, 대구강서소방서 등 1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무인기(드론), 기동방제차량(유회수기, 동력분무기 이송), 선박(무인선 포함), 화학사고 대응차량 등을 활용하여 하천에 기름과 화학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신속한 방제활동에 초점을 두고 훈련과 토론을 시행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위기상황 전파 및 판단, △기관별 역할, △오염물질 방제 및 폐사어 수거, △후속조치 등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에 따른 사고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 따른 대응 결과와 개선점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에 반영하고 현장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실전과 같은 합동 방제훈련으로 실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시행착오를 줄여 낙동강 수계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라며, “수질오염사고 유형별 신속 위기 대응 훈련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합동방제훈련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정봉우 (044-201-7061)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부	책임자	부 장	이동범 (032-590-3901)
		담당자	대 리	이재영 (032-590-3911)



□ 훈련 개요

- **[목적]** 대규모 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한 사고전파 및 상황판단, 합동 방제작업 등 위기대응 능력 제고
- **[일시]** '24. 8. 20.(화) 10:30~12:00
- **[장소]** 대구 달서구 파호동 460 인근(성서산업단지 인근 금호강 하류)
 - ※ 사고지점으로부터 낙동강 하류 80km 지점에 창원 칠서 취수장(440천m³/일, 약 135km 지점에 부산 매리(1,725천m³/일).물금(840천m³/일) 취수장 등이 있어 신속한 방제 필요
- **[참여]** 환경부(물환경정책관 등), 대구청,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구미화학방재센터, 대구시(달서구 포함), 한국환경공단(방제센터), K-water, 대구강서소방서, 제2작전사령부 등 10개 기관

□ 훈련 진행 : 합동방제훈련 및 토론

- **[실제훈련]** 토론훈련 시나리오 상 주요 상황별(사고대응 및 방제작업) 관계 기관이 합동 실제방제 훈련 추진

부상자 구조 ➡ 초동대응(오일펜스, 유출물질 농도 측정 등) ➡ 지원인력 도착(1_지자체, 공단) ➡ 확산범위 육안 확인(드론 등) ➡ 방제작업(붐, 패드) ➡ 지원인력 도착(2_군 부대 등) ➡ 방제작업 (2차 펜스) ➡ 폐사어 수거 ➡ 채수 및 잔류농도 측정

○ [토론]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

-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제21조(위기평가)
- ▶ 수질수생태과장의 상황판단회의 개최 건의 또는 물환경정책관의 개최 지시에 따라 회의 소집
-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합동방제훈련 상황도

